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법공양 페이지

공에서 나온것 공에 놓을때 업보 녹아

15면에서 계속

지구적·우주적 삶에 대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이치를 알게 되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는거죠. 말하자면 한마음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나 그것을 거둬잡고 작용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개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 스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구적, 우주적으로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상응하는 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답 내가 있고 상대가 있듯이, 내가 가라가 서로 상응하고 교류하면서 살듯이 지구도 혼자 동그랗게 돌아가는 독불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성들도 서로 간에 교류하고 상응하면서 우주의 슬한 별성들과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좋은 기계를 들여 놓았는데 그걸 자유자

“한 생각에서 나온 말 한마디 얼마나 무서운줄 모르실 겁니다 그대로 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재로 활용할 줄 모르다면 아무리 자동기계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마음이 우주 구석구석 안 닿는데가 없지만 그걸 굴릴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면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없다고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애깁니다.

예전 같으면 오고 가기가 불편하고 아예 두절이 된 때도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지금은 지구 구석구석을 안방에 앉아서 다 보고 듣고, 그냥 한통대처럼 주고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보이는 안보이는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한마음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법당에 앉아 있으면서 각자 천차만별의 마음 씀씀이를 모르지만 알고 모르고를 떠나 서로 교류하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도리부터 알아야 한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고정관념으로서의 습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응용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삶의 보람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먹여 주고 살려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도리의 진미를 안다면 개인적이든 지구적이든 무슨 문제라도 다 풀어갈 수 있는 도리가 있는 줄 알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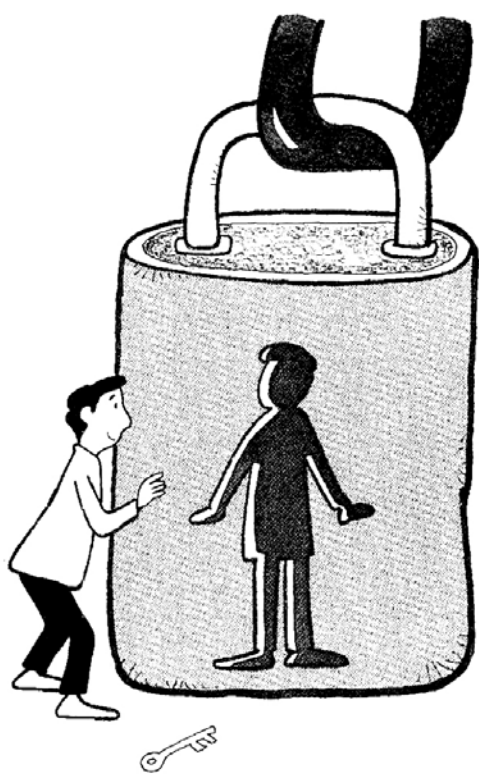
개별적으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누구라도 똑같이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잘 굴리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서로가 합일점을 이뤄간다면 삶이 그대로 보람이고 기쁨이 될 겁니다.

지금에 예전에 비해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와 같이 후일에 가면 또 '아, 그때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지금과 비교해서 새삼스러운 시대감을 줍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어떤 설계를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유행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무에서 유로 나오는 도리가 투철해야 합니다.

석존이래 수많은 선지식들이 나와서 가르쳐 줬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참 얼마나 피눈물 흘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도 제 탓이다 하겠지만 이젠 풍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백마디 말보다 한번 실천하고 들어가게 아주 중요하합니다. 실천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해 버리고 만다면 바로 자기가 알고 우주 법계가 있는데 어떻게 말인들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말이 한데에 떨어져도 안되게 실연이 없는 거지되어서는 더욱 안되지요.



그림·최추현

그랬는데 그 녹음이 된데다가 다시 녹음을 한다면 앞에 한 녹음은 지워질게 아니냐 하고요. 자기한테서 나온 것이니 자기한테 되 놓으라고 했지요.

본래는 사대오온이 다 공했으니 자기도 공하고 세상에 다 공했어! 그러니 공한 자기한테서 나온 것 공한데다가 다시 놓으면 바로 그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했던 것 지워지듯이 지워질게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한발짝 떼어놓고 또 한발짝 떼어 놓는 것이나 24시간 생활하면서 금방 났다가 없애고 했다가 없애는 반복을 하는 것이나 다 녹음했다

자동차로 비유해도 좋겠지요. 자동차가 있고 기름이 있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운전사입니다. 또 테이프에 녹음하고 지우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공에서 나온 것이나 공에다 놓으면 지워진다 하는 것은 본래 붓을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우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것이든 알고 지은 것이든 녹음된 것을 지우려면 다시 새 것을 녹음하라는 것이지요. 공한 도리를 알아서 아예 녹음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면 모를까 이왕 지저른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지저른 것이라면 앞으로 지저르지 않아야 하고 이왕 녹음된 거라면 이 마음도리를 알아서 되녹음 하라는 것이지요.

아는건 아는대로 놓고 모르는건 '주인공 너만이 알수 있어' 하고 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놓고 잘못된 건 빠르게 돌려놓고 뒷발자국 생각않고 때놓듯 놓고 가라는 겁니다

가 없애고 녹음했다가 없애는 것과 같을 수 있지요. 공한데서 나온 것 공한데다 놓아야 없어집니다. 한발 떼어놓고 또 한발 떼어놓으면서 영원한 오늘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공에서 나온 것 공에다 놓는 거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 일체를 맡겨 놓아라 하는 것은 한 발 떼어놓고 또 한발 떼어 놓듯이 할나할나에 몰락 놓고 가라는 말입니다. 한 번 녹음된 게 그대로 있다든지 24시간 간다든지 그러는게 아니라 1초도 못되어서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그러니까 몰락 몰락 할나에 놓고 가면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하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아라. 되는 것도 법이고 안되는 것도 법이니 동 땅 놓고가라. 그래야 테이프 지워지듯이 지워져 공테이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대오온이 공하고 자기도 세상도 공합니다” “무한대의 자가발전 능력 마음대로 쓸수있어”

개인적으로나 나라, 지구적으로나 상응하고 교류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해로운 일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런 해로운 일이 때로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며 당하고 사는게 인생이지요. 그런데 같이 돌아가고 있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혹은 먼 데 갔다가 오는지 가는 지 몰라라 되는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도리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근본 마음자리에서 일체만법이 천차만별로 나뉘며 돌아가니까 오로지 마음이어야 막을래도 막을 수 있고 하나로 같이 통글리려면 통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음기기에 서로 주고 받는 이치가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하늘의 별을 보고 별 하나 나하나, 별 둘 나 돌렸듯이 별성과 내가 생명의 근본에서 돌아옵니다.

말하자면 한 통력으로 돌아가고 통심이자 동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능력은 광대무변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예

그걸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내가, 하찮은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지만 내가 힘이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 앞에 바로 통심으로서, 통력으로 무한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각자는 무한대의 발전기에 가설된 자가발전기와 같다. 그러니 불을 켜려면 켜고 그 능력을 좋게 쓰려면 쓰고 그건 각자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가설이 되어 있으니 조금도 예누리가 없이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 한번 잘못 쓰면 구덩이에 빠지고 마음 한번 잘못 쓰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평소엔 여러분은 그냥 화가 난다고만 생각없이 '어휴, 저 풀 안봤으면 좋겠다' 싶지않는 나가서 죽어라 하는 막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무한능력을 가진 발전소라는 걸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내 한 생각의 마음자리에서 더불어 뛰

어나온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겁니다. 그게 그대로 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자기가 끊어서 부수음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게 어디서 오는 줄 모르니까 한번 잘못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 한단 말입니다.

마음 한번 잘못 쓴 것은 쫓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존엄한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도리를 알아야 현실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개발하는 이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줄 아는 것만 으론 안되지요. 어디로 오는 지도도 알고 마음오르다가 한마음이 되는 도리도 알아야 하지요. 묵마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면 생물이 있다는 걸 아는 데 있지 않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잘 알아서 상태를 항상 내 몸같이 내 마음같이 생각하며 높게 보지도 낮게 보지도 않으면서 겸손하게, 진심으로 불성을 지니고 산다면 어떤 문제라도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놓으면 인과도 없는지요

문 한 생각 일으키게 한치의 예누리도 없이 언젠가 다 자기가 받아야 한다면 스님께서 놓고 말라기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인과법을 부인하시는 결과의 말씀은 아릅니까?

답 전에도 여러번 비교해서 얘기 드린바 있지요?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영 안지워진다.

될대로 되라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착한 놈 잘 사는 것 못 봤으니 내 멋대로 산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났으니 한마디 하죠. 악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말지만 착하게 사는 것도 끌고 있고 악하게 사는 것도 끌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지요. 또 남한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들도록 계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보고 착한 일 해보라고 해보세요. 툭 주고 하라 해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꼭 나빠서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저지르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지은 일은 알게 받고 모르고 지은 일은 모르게 받기 마련인데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헤아리며 살겠습니까?

사람은 고통동물이기 때문에 나쁜 거 좋은 거 알만큼 알고 가릴만큼 가리니까 이런 말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 엄청난 도리를 생각해 본다면 공에서 나온 것 공에다 놓는 것만이 녹음 테이프를 지우는 길이다 이겁니다.

어느 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모르고 나쁜 일을 했을 때 그것도 다 주인공이 시킨거다 하면 그게 지워지는 거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얘기와 같지요. 가령 자물통과 열쇠가 있다고 합시다. 자물통이 없어도 아니되고 열쇠가 없어도 아니되고요. 그러면 자물통은 뭐고 열쇠는 뭐냐? 자물통을 불성이라 한다면 열쇠는 육신이고 열쇠고 하는 건 마음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되돌려 놓아야 마음에 제끄러기가 안 남고 앞으로도 잘못되지 않을지요. 그게 고해성사지 자기가 한 것을 왜 남한테 고해서 알리고 합니까? 반성을 해도 자기가 하고 회개해 해도 자기가 해야 하지요.

물론 사람은 걸 보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살고 아는 사람은 아는대로 살지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놓는다 할 때도 사람으로 어떤 것은 놓고 어떤 것은 안 놓고 그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서 떠올랐는지 그냥 떠올랐는지 가려서 놓으라고 했었나요? 알고 나온 것은 아는 걸로 놓고 모르고 떠오른 것은 그냥 놓고... 다 놓으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차를 탈 요량으로 주유 차를 걸어 줄을 썼는데 탄 사람은 탄 사람대로 차를 타고 갔고 못탄 사람은 거기 그대로 줄을 썼다 이겁니다. 타지 못한 사람은 타지 못했으니 거기서 서 있는 거죠.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과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 차원이 다른 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내 사랑심으로 어떤 것이 떠올랐든 아는 건 아는대로 놓고 잘 됐다 싶은 것은 감사하며 놓고 모르는 것은 주인공 너만이 알 수 있어 하고 놓고 잘못된 것은 빠르게 돌려서 놓고 여려하게 한 발 떼어놓고 뒷발자국 생각않고 한 발 떼어 놓듯이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고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야만 열쇠를, 자물통에 딱 들어 맞는 열쇠를 쥐게 되고 열쇠를 쥐어야 맘대로 열고 닫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협찬 한마음

이시아준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삶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온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빛어낸 깨달음의 희열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0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란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격의 한 빚건으로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편이라는 과감적인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결미를 제거하고, 자생력을 사용된 것도 원저의 난독을 숨기 위해 국역하는 이시아준의 취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시아준은 불은 바쁜 지어 어긋나도 읽어 전해되다 는 정신으로 사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